

2026. 6. 27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6월 2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

전략주택공급과장

양준모

02-2133-6280

상생주택팀장

박진국

02-2133-6285

관련 누리집
(메뉴)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 쪽수: 3쪽

수색역 역세권, '어르신 안심주택' 696세대 공급 본격화...맞춤형 돌봄시설 완비

- 제3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, 수색동 72-2 일대 촉진지구 '조건부가결'
- 수색역·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지하 7층~지상 28층, 총 696세대 공급 예정
- 맞춤형 데이케어센터, 시니어클럽, 단기 지원주택 '중간집' 조성... 보행환경 대폭 개선

☐ 수색역 인근에 어르신들이 쾌적한 주거공간부터 돌봄과 중간집,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는 '어르신 안심주택' 696세대 공급이 본격화된다.

☐ 서울시는 6월 25일 제3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수색동 72-2번지 일대에 '어르신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(안)'에 대해 '조건부가결' 했다고 밝혔다.

○ 대상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·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세권에 위치하며, '서울시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'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어르신안심주택)을 공급한다.

☐ 이번에 지정된 공급촉진지구는 총 7,978㎡ 규모다. 이곳에 지하 7층~지상 28층(최고 높이 89.8m) 규모 총 696세대(민간임대 578세대, 공공임대 118세대) 공동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.

※ 통합심의 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

- 단지 안팎으로 어르신 일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촘촘하게 들어선다. 공공시설은 낮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는 데이케어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조성된다. 특히 병원에서 퇴원한 고령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,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3개월 이내 머물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단기 지원주택 ‘중간집’을 운영할 예정이다.
- 단지 내에는 시니어헬스클럽, 맞춤형 식당, 메디컬 케어센터 등 고령층 특화 커뮤니티 공간을 다채롭게 조성한다.
- 지역주민 보행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. 수색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, 이면도로와 완충녹지를 정비한다. 단지부터 수색역까지 연계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.
- 건물 저층부(지하 1층~지상 2층)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
-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이번 심의 통과로 수색역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어르신들이 주거 걱정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, 보행로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

붙임 : 위치도 및 조감도 1부. 끝.

□ 위치도



□ 조감도



※ 통합심의 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과정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